

『평』은 우리 전통단위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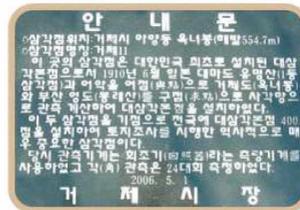
「평」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일본식 단위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육지측량부대를 비밀리에 파견하여 한반도를 측량하였고, 한일병합과 동시에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마도의 일등삼각점을 기점으로 부산 영도의 봉래산과 거제도의 옥녀봉을 연결하는 삼각점을 설치하고,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3447점의 삼각점을 설치하여 지형도를 제작하고, 이를 식민통치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단위가 바로 일본식 측량법에서 사용하던 단위인 “자”와 “평”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참조 www.ncri.go.kr/study/museum_history1_6.asp)



유경희
계량측정지도과
공업연구관
02-609-7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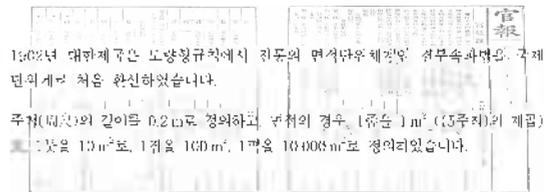


그러면 우리 전통단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고유의 결부속과(結魚束把)법이 있었습니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 때부터 약 4000년 이상, “결부속과법”이라는 우리 고유의 면적 단위를 사용해 왔습니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한줍(1把, 파), 한뭇(1束, 속), 한짐(1負, 부), 한떡(1結, 결)은 현대의 국제단위계와 같은 10진법으로 넓이를 정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단위입니다.



조상의 빛나는 지혜가 담긴 “결부속과법”은, 인쇄상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일본자(曲尺, 30.303...cm인)를 기준으로 한 직관법에서의 면적단위인 “평(坪)”을 사용하면서 부터 사라졌습니니다.

그러나, 결부속과법은 면적단위로서 기능은 상실했지만 ‘한줍의 쌀’, ‘벚집 한단’, ‘한집지고 간다’ 등의 생활 속 언어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술표준2008.8